



연변 1분기 고품질 발전의 답안지 들여다보다

동북 발전의 장대한 청사진에서 연변의 1분기 경제수치에는 고품질 발전의 맥박이 약동하고 있다. 대외무역 수출입총액 62.8억원의 눈부신 표현은 농·림·목·축·어업 총생산액 6%의 안정적인 성장폭,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 9.4%의 강력한 성장과 어우러졌다.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변방의 이 뜨거운 땅은 대외무역, 현대농업, 신행공업의 협동공진으로 전면적인 진흥의 로정에서 '품질과 효과 이중 성장'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다.

아침해살이 훈춘종합보세구에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제품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 트럭이 질서있게 통관하고 있다. 다국전자상거래 '1210' 수출 모식이 개통된 지 3개월 만에 이곳의 무역액은 이미 3,000만원을 돌파했다.

"훈춘세관은 '1210' 수출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일대일' 방식으로 다국전자상거래 장부 화물 준비, 수출 신고, 화물 검사 등 절차를 설명하여 기업의 통관 편리화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켰다." 훈춘세관 부관장 남명우는 앞으로 각종 다국전자상거래 편리화 조치를 계속 실행하여 감독관리 효과와 봉사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수치가 보여준 데 따르면 1분기 훈춘종합보세구의 수출입 무역액은 16.49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42.7% 성장한 가운데 수출액은 33.2%, 수입액은

80.5% 성장하여 대외무역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엔진으로 되었다.

훈춘통상구와 100킬로미터 떨어진 RCEP 연변다국수출입센터도 마찬가지로 열기가 뜨겁다. 체첸관, 메이커업관의 종류가 다양한 상품이 사람들로 하여금 눈이 휘둥그레지게 하는 가운데 소비자들 '몰입식' 쇼핑을 즐기고 있다.

수치가 보여준 데 따르면 이런 '오프라인체점 + 온라인통련'의 혁신 모식은 전 주 다국전자상거래 수출입액이 40%의 성장 속도로 12.6억원을 돌파하도록 추동하였는가 하면 해산물, 농고차 등 품목의 파격적인 성장도 이끌었다. 지역 개방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지난날의 '동북저지대'가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고지로 탈바꿈했다.

두만강변의 개방 엔진이 지속적으로 굉음을 내면서 흑토지에서도 현대농업의 발전 서곡이 연주되고 있다. 3월 하순, 연길시 조양천진 태충촌에 위치한 연변농공재배농민전문합작사는 봄갈이 준비를 마쳤다. 주머니에 담겨져 가지런히 쌓여있는 길경 830 벼종자들은 합작사 리사장 웅전룡의 품속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이 품종은 다수확 량질에 질병 대항성이 강하여 주내에서 주로 추진하는 우량종중의 하나이며 우리 성의 벼재배 우선품종으로 농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연변에서는 정책 실시에 힘입어 '우량종 보급 + 과학기술 봉사'의 현대농업 발전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몇년

동안 우리는 매년 기업, 합작사 및 대규모 재배가구를 선정하여 량질의 종자를 발급하는데 연변농공재배농민전문합작사가 바로 그중의 하나이다. 올해 모두 1.3만근의 종자를 발급했는데 생산량이 헥타르당 1.5만근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변주농업농촌국 농업기술보급총소 소장 김성혜에 따르면 연변에서는 또 2,000무 이상의 시범기지를 건립했는데 기술지도소조가 전반 과정을 추적봉사하여 농업 품종의 우수 배양과 품질 향상을 끊임없이 추진했다. 이 표준화 재배 모식은 농업생산의 품질과 효과를 현저하게 향상시켰는바 전 주 1분기 농·림·목·축·어업 총생산액이 11억원에 달해 성장 속도가 전 성에서 앞섰다.

특색농업 심층가공 분야에서 과학기술혁신은 마찬가지로 강력한 동력 에너지를 불러일으켰다. 돈화시윤록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의 전자동 고정정생산작업장에서는 원료 투입에서부터 완제품 산출까지의 모든 절차가 정밀계기를 통해 엄격한 절차 통제를 실현하여 인삼제품의 품질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삼 1호' 인삼 품종은 기업이 26년간 동안 연구개발하여 내놓은 과학기술 성과로서 이 회사가 연변특색산업발전센터와 근 20명의 업종전문가와 연합하여 공동으로 선발, 육성한 것이다. 현재 회사가 정밀가공을 통해 개발한 홍삼음료, 흑삼원료 등 다원화 제품들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불

타나게 팔리고 있다.

"올해 여러 상정회사와 협력한 결과 영업액이 질적인 비약을 실현했다." 회사의 김충철 리사장은 과학기술혁신과 친환경 발전의 심층적인 융합은 당지의 '록수청산'을 지속적으로 부민강주의 '금산은산'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연길국제공항공경제개발구에서 연변단군약업유한회사는 1.5억원을 투자한, 부지면적이 4만평방미터에 달하는 새 공장구역의 사무청사, 조가공공장, 인삼세척공장 건설을 마쳤다. 룡정시열림국삼림리조트 프로젝트는 총 투자액이 3.5억원으로 열림국호텔, 룡산상품정원, 희설락원 및 부대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민박과 특색상가가 올해 국경절 연휴에 대외에 개방될 예정이다. 연변주공업정보화국의 수치에 따르면 1분기 전 주 규모 이상 공업생산액이 6.1% 성장한 가운데 공업기업의 생산액 최고 성장폭이 143.3%에 달해 공업 성장의 두드러진 하이라이트로 되었다.

세조의 약동하는 수치, 세갈래의 양양하는 곡선은 변강 진흥의 시대의 그림을 그려낸다. '강철락타대'가 다국 룡로를 질주하고 흑토지에 과학기술 새싹이 움트고 로공업기지가 지혜제조의 생기를 발산하면서 연변은 한창 개척 정신, 혁신적 지혜, 일하는 작품으로 고품질 발전의 새 로정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 길림일보



'어머니의 날'을 맞아 전 성 각지에서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주제 행사를 전개하여 어머니를 존경하고 모성애에 감사하는 량호한 기풍을 조성했다. 도문출입국변방검사소 경찰은 도문시 신화가두 신안사회구역을 찾아 사회구역 로인들과 함께 변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유람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만끽하며 '어머니의 날'을 함께 경축했다.

/ 길림일보

우리 나라 기본양로보험 가입자수 10억 7,000만명 초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3월말까지 전국 기본양로, 실업, 산업재해 보험 가입자수는 각각 10억 7,100만명, 2억 4,400만명, 2억 9,70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2만명, 256만명, 271만명이 증가했다.

'신형 산업재해보험'중 새로운 취업형태 인원에 대한 직업상해보장은 시범지역에서 줄곧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3월말까지 배달원, 예약택시 운전사 등 플랫폼 종사자가 1,104만명을 넘어섰다.

기업 수입과 지출을 보면 1분기 기본양로, 실업, 산업재해 등 3가지

사회보험기금 총수입은 2조 3,600억원, 총지출은 1조 9,400억원이고 3월말 루적 잔액은 9조 6,000억원으로 기금 운용이 전반적으로 평온하다.

기초생활보장 및 실업자의 기본생활보장 면에서 1분기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은 826만명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특수곤난인원 등에 도시농촌주민 양로보험료를 대리 납부했으며 이외에도 실업보험금, 기본의료보험금 대리 납부, 가격 임시보조 등 실업보험 365억 4,000만원을 지급했다.

/ 신화사

혼인신고 더 이상 호구부 필요 없어

새로 수정된 〈혼인신고조례〉가 5월 10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가정봉사 사업 내용을 증가하여 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종합성 혼인가정봉사 지도사업과 혼인가정 보도봉사 체계 건설을 강화한다고 규정했다.

둘째, 혼인신고 '전국 통합처리'를 실행한다.

셋째, 혼인신고 봉사를 최적화하고 현금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조치를 취해 혼인신고 봉사 수준을 향상시키고 혼인신고 장소의 규범화, 편리화 건설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혼인신고 시 호구부를 사용하지 않는다.

〈조례〉에 따르면 2025년 5월 10일부터 결혼과 리혼 신고 시 호구부 제출이 전면 폐지되며 혼인신고기관은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결혼과 리혼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혼인신고 시 내지 주민은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서면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본인의 주민신분증.
(2) 본인에게 배우자가 없고 상대방 당사자와 직계혈족 또는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이 아니라는 서명서명.

혼인신고 시 당사자가 다음 상황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신고기관은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다.

(1) 법정 결혼년령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남녀 쌍방의 완전한 자유의사가 아닌 경우.
(3) 일방 또는 쌍방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는 경우.
(4) 직계혈족 또는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조례〉는 국내 주민이 자유의사에 따라 리혼하려 할 경우, 남녀 쌍방은 서면 리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기관에 가서 공동으로 리혼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리혼신고 시 국내 주민은 본인의 주민신분증과 결혼증을 제시해야 한다.

/ 신화사

제1 자동차흥기 200여기로메터 공중 항속 비행자동차 발표

—4월 판매량 3만 3,200대 돌파

최근, 제1 자동차흥기가 최신 판매량 성적을 발표한 가운데 4월의 월간 판매량이 3만 3,200대를 돌파하여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성장, 1분기의 강력한 추세를 이어가며 자체 호화브랜드의 선두적 지위를 한층 더 공고히 했다고 전했다.

4월 한달간 흥기 신에너지자의 표현이 눈에 띄는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3% 성장해 판매량 성장의 핵심 동력에너지지를 지속적으로 담당했다. 흥기 연료차 제품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했다. 이와 동시에 흥기 금해바라기 제품의 판매량이 다시 100대를 돌파하며 초호화 자동차시장에서 기선을 잡았다.

이와 동시에 흥기 브랜드의 신제품이 빈번히 모습을 드러냈다. 4월 23일, 흥기 브랜드는 상해국제자동차박람회에서 흥기 전공 06, 흥기 H5 PHEV 두가지 중량급 신에너지

차종을 발표했다. 또한 세계 최초로 C+급 호화 순수전기/하이브리드 세단 H9와 SUV HS9, 최초의 호화 하드코어 오프로드 차량도 선보였다. 200킬로메터가 넘는 공중 항속을 제공하는 흥기 '천련 1호' 비행자동차도 최근 발표되었는데 년 내에 첫 비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소개에 따르면 흥기 브랜드는 2023년 스마트 네트워킹 연결 신에너지 자동차로 전환된 이래 이미 관련 핵심기술 1,000여개를 돌파했다. 지금까지 66애플리케이션 전고체 셀(電池) 시험제작 및 검증을 완료하고 중국 최초의 차급급(車規級), 5나노 5억 융합 집인 '흥기 1호'를 출시하여 완전하고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가진 전체 주동적 스마트 새시(底盤)를 개발했다. 일련의 기술적인 혁신응용을 통해 흥기 브랜드는 '전공' 순전기, '흥곡' 혼합동력, '구장' 스마트 등 3대 기술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그 지속적인 약진을 위해 튼튼한 기술적 버팀목을 다졌다.

/ 유경봉기자

연변팀 홈 3연승 '만끽'

▶ [관련 기사 3면]

길림성 1분기 취업 형세 안정 속 질적 향상

올해 1분기 우리 성의 취업사업은 성과가 현저하고 취업 형세가 총체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여러 관련 지표가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는바 연간 취업사업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대학졸업생의 길림성 잔류 취업 촉진 면에서 우리 성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은 대학졸업생 취업창업 '10대 행동' 30개 혁신 조치의 착지를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정책을 해독하며 졸업생들이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알게 하고 누릴 권리는 모두 누리도록 철저히 보장했다. 동시에 '직업으로 미래를 인도하자—2025년 전국 도시 연합초빙회 대학졸업생 봄철 특별초빙회' 및 '길림에 인재를 모으기' 길림성 2025년 봄철 청년단체 초빙 등 활동을 가동했다. 이외 청년견습 '만개 일터 모집' 계획을 실시하고 올해의 신규 견습 일터수가 지난해를 초월하도록 힘써 대학졸업생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와 실천 플랫폼을 제공하게 된다.

우리 성은 로동에 의한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 로동력 이전취업 '사계춘' 행동과 농민 로임성 소득 향상 행동을 실시하고 농촌 로동력 이전취업 대상과 귀향입향 창업기지 대상을 적극 추진했다. '기능으로 앞길을 밝히기' 직업기능육성행동을 전개하여 이미 연인수로 9,144명을 육성시킴으로써 농민들의 취업 기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 '취업 자원의 달', '춘풍행동', '봄에 농민공들에게 파스함 전하기' 등 활동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 특별 초빙회를 2,245회 조직하여 33만 9,700개의 일터를 제공했다. 1분기 전 성 농촌 로동력 165만 1,600명을 이전취업시켜 연간 계획의 61.17%를 완수,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는바 로동에 의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성은 실업, 취업곤란 등 인원들의 취업을 보장하는 면에서 실업인원 등록관리봉사 난관들과 행동을 전개하여 장기 등록실업인원의 점유했을 효과적으로 낮추었다. 취

업곤란 집단에 대한 공익성 일터의 개발관리를 규범화하여 중장년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해주었다. 기초보조를 강화하고 실명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주동후속'(主动跟进) 봉사기제를 보완했다. 1분기 도시 신규 취업자는 4만 9,600명으로 연간 계획의 23.62%를 완수했다. 실업인원 재취업은 2만 600명으로 연간 계획의 37.45%를 완수했으며 취업곤란자 1만 700명을 취업시켜 연간 계획의 37.78%를 완수했다. 235가구의 무취업 가정을 지원하여 동태적인 제로화를 유지했다.

우리 성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은 취업 촉진 기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기업 지원 및 일터안정화 면에서 단계적 기업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을 최고 기준으로 실행해 기업에 7.2억원의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취업 일터를 안정화했다. 창업자금 지원 면에서 1분기 창업 담보대출 1.69억원

을 발급하여 직접적으로 346명의 창업자를 지원했으며 1,317개의 일터를 창출하여 창업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창업을 통해 취업을 촉진시켰다. 동시에 기층 취업 공공봉사 표준화 보급 활동을 전개했다. 전 성 기층 취업 봉사시설, 봉사제도, 봉사목록, 봉사항목, 봉사절차 등 '다섯가지 표준화'를 실현했다. 단기 일터시장과 '15분 일터 봉사권' 등 '집앞' 취업 봉사 플랫폼의 구축을 확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취업 봉사를 제공했다. 1분기 우리 성 취업사업은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으며 대학졸업생, 농민, 실업, 취업곤란 인원 등 주요 집단의 취업 보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각종 취업 촉진 기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다. 앞으로 우리 성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은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취업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연간 취업 목표의 순조로운 완수를 확보하여 경제사회발전에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할 계획이다.

/ 길림일보